피란시절 남구의 기억과 증언
❺ 용당동과 유엔묘지

유엔묘지 조성에 북한군 포로 동원… 용당 앞바다 한때 핏빛

임춘규
1940년 생
용당동 출생

1950년대 초 막 조성된 유엔묘지. 국기게양대 뒤로 황령산과 그 아래 대연동 마을들이 보인다.

1952년 남구 용당동 문수사의 첫 법당.

해방 전 용당동에 진보적 사상을 가져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젊은 사람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6·25가 발발하고 보도연맹에 대한 검속이 있을 때 한 명은 피해 다녔고 나머지는 국군 장교로 자원해 군에 갔다. 용당동 출신으로 대연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군에 자원입대한 김익만이라는 분은 전쟁 중 전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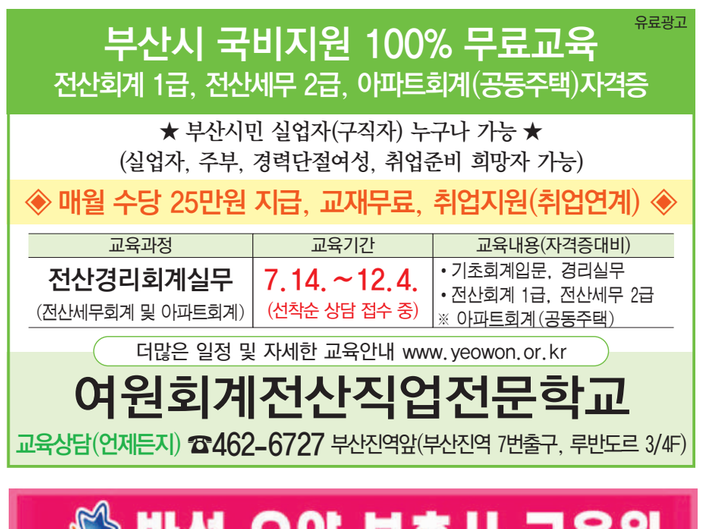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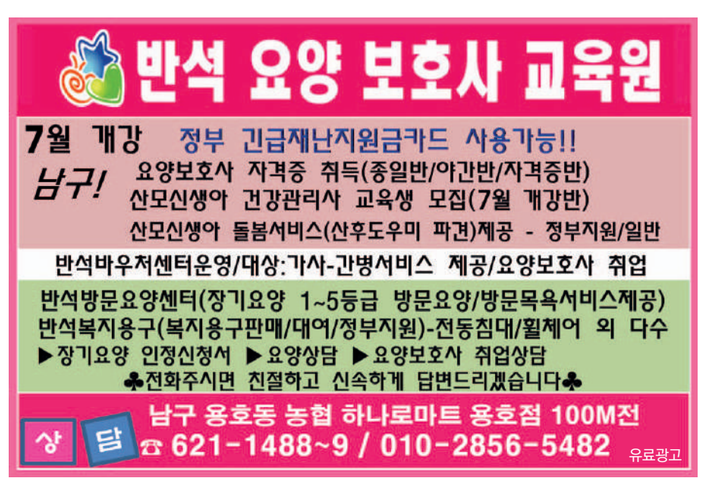
용당동에 온 많은 피란민들이 신선대 솔밭 앞에 '하꼬방'을 지어 살았다. 마을 주민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 중 형편이 좀 낫거나 관료들이었다. 용당동 출신의 제7대 국회의원이었던 임갑수씨는 과묵한 성품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인천과 만주 쪽에서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했다. 그는 한국전쟁 시기 조봉암 국회 부의장을 용당동에 피란시키기도 했다. 조봉암 의원이 용당동에 오는 날에 경위가 검은색 세단을 운전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제3육군병원 의사인 박기출 씨와 몇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피란 왔다. 박기출 의원은 몸이 매우 비대했다. 소설가 최인호 씨도 용당동에 잠시 동안 피란 생활을 하다 서울로 갔다.

일제강점기 신선대 쪽에 있었던 검역소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징병 가는 젊은 장정들이 이곳에서 신체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레일이 깔린 창고, 병원, 화장막 등이 있었다. 용당동에 왔던 군부대 중에는 제일 먼저 포병부대가 들어와 신선대 아래에 주둔했다. 해방 후 해양대학교가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육군병참학교가 주둔했다. 용당동과 감만동 중간인 솔개고개의 극동석유가 있는 쪽에는 수송부대가 있었다. 박인환 씨가 운영했던 고아원인 형제복지원은 방파제와 솔밭 인근(훗날 주례동으로 이전)에 있었다. 이곳에 있다가 감만동으로 이전해 갔다. 이들은 별도로 권투도장을 마련해 두고서 권투 연습을 했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피란 온 아이들이나 고아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 고아원에 수용했다. 고아들에게 배당되는 원조를 많이 후원받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한국전쟁 피란시기 용당동에 군부대와 고아원이 들어왔어도 원주민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주민들은 평소처럼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생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대연초등학교 5학년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피란민들이 몰려와 학교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거주했다. 얼마 후 피란민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미군들이 운동장에 들어와 천막과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부대는 유엔묘지를 조성하는 부대였다. 어떤 미군은 학생들에게 초콜릿 등 먹을 것을 던져주는가 하면 어떤 군인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용당동 초등학생의 경우 1, 2학년은 동항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3학년의 두 반 중 한 반은 용당분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다가 4학년 때는 다시 동항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했다. 용당교회가 있던 곳에 가끔 구호물품으로 온 옷을 나눠주기도 했다. 주로 신선대에 거주 했던 교회의 집사들이 구호물품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골라 가져가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 나중에 나에게는 빵모자 하나 주기에 받지 않았다. 교회에서 야간학교를 세워 운영할 때 나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유엔묘지를 만들 때에 용당동 솔밭에 크레인을 두고서 해변의 자갈을 대량으로 퍼갔다. 그리고 용당해수욕장의 모래도 트럭으로 퍼갔다. 그들이 점심용으로 숨겨둔 C레이션(미군 전투식량)을 우리가 훔쳐 먹은 적도 있었다. 유엔묘지를 조성할 때 시신을 매장하기 전 용당동 바다에서 시신에 입히고 감싼 옷과 담요를 빨았다. 그래서 용당 앞바다가 피로 물들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약과였다. 얕은 해안가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 인근에 민가가 버젓이 있는데 누가 이곳에서 이러한 일을 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반공포로들이 모래를 퍼가기 위해 용당동을 거쳐 감만동 모래구찌까지 걸어갔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떡, 소금이나 고춧가루 등을 주면 그들은 숨겨온 담배나 군복 등을 우리에게 주었다. 나중에 포로를 의미하는 'P·W'가 찍힌 군복을 민간인들에게 주는데 이런 옷은 검은색으로 염색해 입었다. 좀 자란 아이들은 이때부터 담배를 배웠는데, 담배가 없으면 솔잎을 말아서 피웠는데 독했다. 용당동에도 피란민들이 많이 들어왔기에 남는 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를 놓았다. 신선대 아래 옛 검역소 지역이 적산으로 분류된 토지였기에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했다. 이렇게 용당동에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피란민들은 세를 얻어 살고, 서민들은 솔밭 아래에 하꼬방을 만들어 살았다.

용당동에도 가설극장이 왔다. 해안 모래밭에 천막을 치면 돈이 없는 아이들은 천막 아래로 몰래 들어가기도 했는데 들키면 크게 혼이 났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와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이어서 변사가 관객들을 울렸다 웃겼다 했다. 나는 변사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가설극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는 콩쿨대회도 있었는데 용당동은 물론이고 이웃 마을에서 노래 좀 한다는 청년들은 모두 한가락 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거칠어진다. 당시 넝마주이와 상이군인은 갈고리로 민간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아이나 어른들은 심한 욕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치고, 박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이들은 병정놀이, 칼싸움, 딱총놀이 등 싸움 놀이가 많아졌다.

증언 채록·정리
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